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창동은 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 등으로 행정수요가 폭주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애로가 극심하므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분동코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운영동의 신설 : 중 1개 동(13개 동 ⇒ 14개 동)
 - 「서창동」에서 「금호풍암동」을 분리하여 신설함.
- 관할구역 확정 : 「서창동」과 「금호풍암동」의 관할구역을 확정
 - 현행 「서창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법정동인 '금호동'과 '풍암동'을 「금호풍암동」의 관할구역으로 함.

3. 검토의견

관내 서창동은 면적이 광활하고 인구가 7만명을 초과한 거대 동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여 복합행정 수행으로 인한 업무의 폭주, 주민생활양식의 이질감, 원거리로 인한 주민불편이 극심하여 1개 동의 운영체계의 한계를 벗어난 상태로써 분동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확정해야 하고, 주민의 행정애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창동 분동에 관하여 지역별로 주민들의 이견이 분분하고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행정동 분동의 본래 취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의 증진에 있다는 점에서 서창동의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신흥개발지역인 「금호풍암동」(법정동)을 1개 동으로 하고, 농촌동이며 재래 촌락지역인 「마록·벽진·세하·용두·서창·매월동」을 분리하는 방안이 최적의 안이라 생각하여 안처럼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